“종단 화합으로 결속… 찾아가는 불교로 傳法”

인터뷰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 무원 스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3월 20일 천태종 제 19대 신임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무원 스님은 4월 6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서 교계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환경문화 조성’ ‘보살도 수행 강조’ ‘찾아가는 불교 표방’ ‘종단의 내부 결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년간의 종책 기조 방향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모두가 공업중생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동체대비의 불교사상을 펼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1문1답 인터뷰로 재구성했다.

△종단을 이끌 총무원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은 ‘화합’ 입니다. 종단 스님들과 신도들의 목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이며,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총무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사회도 예외는 아니죠. 또한 남북화합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국제적인 다문화시대에 다문화 다민족 등 함께 어울리는 문화 역시 또다른 화합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선거로 더욱 심화된 우리 사회의 젠더와 진영 갈등은 물론 종단의 내부 결속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 화합을 종단 운영의 주요 화두로 삼겠습니다.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종책으로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꼽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노인 복지관의 문화는 찾아오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복지관을 찾아오는 노인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우리 불교계에서 중요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종단 신도들 중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먼저 껴안고 보듬으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 시대에 맞게 노인과 다문화가정 및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의 구석구석을 먼저 찾아가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인 ‘찾아가는 불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는 또한 승려와 신도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 복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원 스님은 1979년 남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인천 황룡사 등 전국 20여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총무원 사회부장, 종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4월 6일 향후 운영기조 발표
남북교류 언제든지 하게 준비
“취약계층에 먼저 다가갈 것”
함께 어울리는 보살수행 강조

△스님은 개성영통사복원위원회 단장을 맡아 천태종 초기 사찰인 북한 개성의 영통사 복원에 참여한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현재는 교류가 중단 된걸로 아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남북민간교류의 통로가 모두 막혀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영통사를 못 가지만 판문점서 영통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북측이 필요한 물품을 모아 전달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통사 복원은 천태종 발상지인 개성 국청사로 가기 위한 교두보이기도 했기에 우리 종단에게는 국청사 복원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총무원장에 취임하고 난 뒤 조불련에 저의 취임 소식을 알리기도 했지만, 현재 답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 천태종은 남북불교문화교류를 위해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계획도 많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보살 불교’를 강조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판과 사판을 구별해 논하지 말고 재가자와 출가자가 다함께 어울리는 불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도(中道) 불교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대승보살도 수행을 우리 종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적으로는 기도수행, 염불선 수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수행들을 철저히 해나간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에게 던져진 ‘정신적 공황이나 빈곤’을 채우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가자수 감소와 함께 특히 젊은이들이 불교를 찾지 않는 현상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이것은 종교인들의 큰 화두이며 비단 천태종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모두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당장 출가자 수를 늘릴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불교가 사람들의 삶에 큰 의지처와 등대 역할을 한다면 저절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포교 방법도 연구돼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융복합문화 실현을 위한 출재가의 지혜를 구하면서 출가자 감소 등 종교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의 대책에 대해 더 이상 외형적 확장에만 머물러선 안됩니다.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즉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젊고 획기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젊은이들을 불교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천태종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종립대학인 금강대가 그동안 부침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태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종단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점점 운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우리 금강대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들이 학생 정원을 못 채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금강대는 소수정예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입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잘되는 학교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학생들 취업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 파키스탄, 간다라 유물전시회 추진

파키스탄 대사, 원행 스님 예방서 유물 공동전시 제안

조계종과 파키스탄 정부가 한국에서 간다라 지역 불교 유물 전시회를 추진한다.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신임대사는 4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간다라 불교유물 공동전시회를 제안하며 불교문화 관광 교류에 대해 환담했다. 〈사진〉



이날 나빌 무니르 대사는 “코로나19가 소강기에 접어든 만큼 많은 한국 불자들이 간다라 불교유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불교유물 전시회 개최에 대해 운을 뗐다.

원행 스님은 대승불교 발상지이자,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인 파키스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원행 스님은 “운반 중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니, 리스크가 적은 부처님 치아사리 전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문화부와 불교중앙박물관 실무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한국불교계가 문화로 협조해 세계평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원했다. 앞서 원행 스님은 2019년 파키스탄 방문 당시 파키스탄 정부와 함께 ‘부처님 고행상 및 간다라 유물’ 한국전시를 논의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자리에는 서상표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도 함께해 한-파키스탄 간의 교류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상표 주파키스탄 대사는 “총무원장 스님이 파키스탄에 방문하신 후 간다라 유적 복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파키스탄 내에서 간다라 불교문화와 관련된 세미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불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파키스탄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993년 파키스탄 외교부에 입사한 나빌 무니르 대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케냐 등에서 근무했다. 2012~2019년 뉴욕 유엔주재 파키스탄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했다. 2022년 3월 주한 파키스탄 대사로 임명받았다.

2020년 12월부터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상표 대사는 2009~2018년 경제기구과장,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 주UN공사참사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등을 지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0억원 승인

4월 4일 중앙종회 임시회
총무부장에 현담스님 선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4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액 20억 1609만여 원을 승인했다.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코로나로 힘들지만 종단 발전을 위한 중앙종회가 되자”고 개회사를 밝혔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145회 임시종회를 기점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과 화합으로 발전한 것은 종회의원 스님들의 협조 덕분이다. 항상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종단 발전과 종도화합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고종 세입세출 결산액은 총무원 18억 4878여만 원, 한국불교신문사 1억 6730여만 원으로 승인됐다. 또 동방불교대 세입결산액은 1억 7555만 원으로 승인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4월 4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했다.

종정 감사에서는 2021년 종단발전기금 감소에 대한 업무진행 차질 발생과 승려의무금 납부 권선, 직할사찰 분담금 지원 방안 마련이 지적됐다. 2020년 대비 각종 종단 수입 감소에 대해 종단 운영 수익 창출에 대한 재정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과 함께 종도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권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종회에서는 총무부장에 현담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호법위원에 송헌, 혜학, 대호, 무종 스님이, 초심위원에 법진, 철오, 정오 스님이, 법규위원에 지만 스님이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흥사터 논란 야기 문화재청장 사퇴하라”

조계종, 대변인 명의 성명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8일 대변인 법원 스님 명의의 성명에서 “법흥사 사찰터는 1960년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스님과 신도의 불사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다. 그런 법흥사터 초석에 앉은 것은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문화재청에서 비지정 불교문화재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면 불교계에서도 포용했을 문제”라고 밝힌 조계종은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가 아니다’고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화재청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하라”고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 강탄재(降誕齋) 거룩하신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시기를 기원하는 의식

제1256주년 금산사 미륵강탄재 降誕齋

진표율사께서 금산사에 미륵부처님을 모신지
올해로 1256주년이 되었습니다.
보시와 계행 그리고 자비심으로 공덕을 쌓아
미륵부처님이 이곳 금산사에 오시길 기원하는
미륵강탄재를 성대하게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근심걱정을 물리치는
행복한 인연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6(2022)년
5. 1. 일요일

주요행사
• 7일 기도 입재 10시
• 대중설법 11시
• 문화체험행사 12~16시

* 증명: 금산 도영 큰스님 / 법문: 불일 평상 큰스님

※ 미륵강탄재 7일 기도
입재 : 5월1일(일), 회향 : 5월7일(토) | 동참금 : 가족당 10만원
떡, 과일, 꽃 등 부처님 공양물도 접수 받습니다.
• 문의전화 : ☎ 063-548-4441~2
• 입금계좌 : 농협 525133-51-000080 (금산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일원 합장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